



정상 경영 노력으로 원전 건설 공기 준수

동아건설산업(주)

지난해 말 워크아웃 기업에서 제외되어 회사 경쟁의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조직 정비를 완료한 후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도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추진 사업인 북한 경수로 사업의 본공사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사 희생의 전기를 맞이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자부하고 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동아건설산업(주)의 지속적인 원자력 건설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도와주신 발주처 관계자와 공동 도급 참여사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우선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아건설산업(주)는 현재 시공중인 울진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성공적인 공기 준수와 원자력 안전성 및 고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원자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 분야

현재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5·6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1호기 건설부터 울진 원자력 3·4호기까지 건설해 오면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울진 원자력 5·6호기의 56개월 공기를 준수하며 원자력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최우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활한 경영 지원과 유경험 기술 인력의 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울진 5·6호기 주설비 건설 공사는 3개사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공사로, 우리 동아건설산업(주)가 대표사를 수행하고 있고 원자력 안전성 및 정밀 시공을 위한 3사 공동 수급체와의

효율적인 공사 관리와 품질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시공 관리 체제 운영을 위한 통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공 정보화를 이룩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국 표준형 원전 건설의 축적된 건설 기술 및 공사 관리 경험과 구축된 시공 정보 시스템을 적용하여 금년 내 착공하는 북한 경수로 주설비 건설 공사와 발주 예정인 KEDO 송배전 설비 건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나라 국민과 정부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 경수로 사업의 정밀한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종래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햇볕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데 일조를 할 계획이다.

특히 요즘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50만kW 이상의 전력 공급 사업과 북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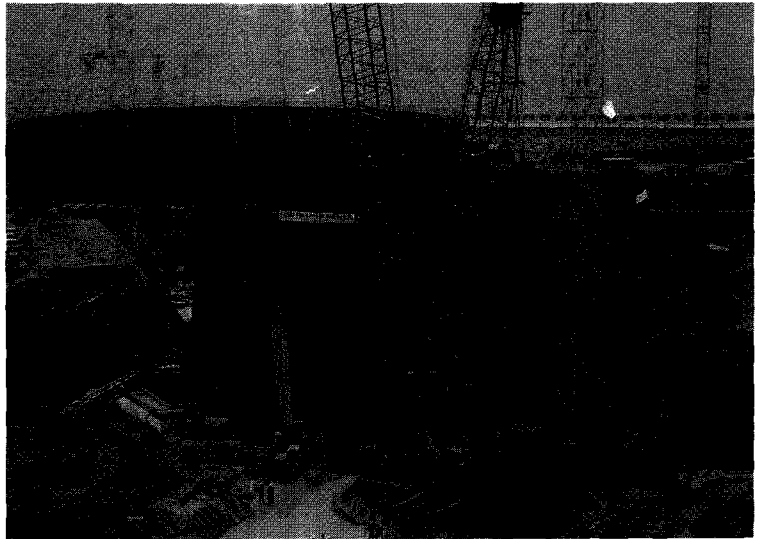
대북 경협 사업 관련 전원 공급 설비 사업에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풍부한 발전소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북한 전력 공급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대북 경협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원자력 건설 사업 분야에 대하여는 금년 말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발주 예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공사와 이후 발주 예정인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및 차세대 원전 건설 사업에서도 한국 표준형 원전 건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국내 유경험 건설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원전 건설 산업의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

현재 회사 갱생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확정되는 정리 계획에 따라 회사의 정상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최근의 어려웠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 경영이 가능한 건설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전임직원이 합심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 가며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특히 원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아건설산업(주)는 현재 시공중인 울진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성공적인 공기 준수와 원자력 안전성 및 고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원자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력 건설 분야는 풍부한 국내 원전의 건설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달성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 시공 품질의 최적화, 발주처와 시공사의 정보 공유 활용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건설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중인 차세대 원전 건설 사업의 설계 개선 및 건설성 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그 동안의 건설 경험을 토대로 원자력발전소의 정밀한 시공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경제성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하여 원자력 발전 원가의 Cost Down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원자력산업의 현안 문제점인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 연료의 저장 시설 건설 기술에 대하여도 당사에서는 해외 우수 경험 업체와 함께 기술 협력 협정을 맺고 유사 사업의 건설 분야의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기술 축적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에도 동아건설산업(주)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의 환경산업인 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